

〈기조강연〉

전환기 종교지도자 교육의 방향탐색

송 병 순

(영남대학교)

I. 서 론

우리는 'IMF 구제금융'이라는 총체적 경제난국에 직면해 있다. IMF 구제금융제 속에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사상최대의 실업사태와 연쇄부도로 인한 무규범의 상태에 빠져버린 신용위기, 가정파탄과 행려자의 급증, 경제적 비관자살과 범죄 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IMF 증후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시대라는 경제위기가 몰고 온 사회불안의 위기적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만성적 중병이 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부정적 삶의 존재 방식이다. 예컨대 자기의 이익 앞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주의,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 만능주의, 동물적 욕구충족을 위한 향락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불을 향해 뛰어드는 하루살이를 연상케 할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안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우리사회는 극도의 가치혼란에 빠져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규범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도덕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덕불감증을 논의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답을 갖지 못하고 불안 해 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가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재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한국사회구조의 불안정성과 부정적 삶의 존재방식이 우리사회 내부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이점은 내일의 한국사회를 위해서 한국의 종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해방 후 한국종교는 가히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보여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종교계가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여온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구조의 불안정성, 소외와 아노미의 확산, 불안의식 고조와 정체성 위기의 심화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아도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사회불안과 위기의식이 지속하는 한 한국 종교계의 양적 성장은 계속되리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종교가 한국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거친 삶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한국종교의 놀라울 정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고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이와 관련된 사회불안의 불안의식이 날로 심화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지난날 한국 종교계가 그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다했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 성장의 정도를 토대로 볼 때 한국 종교계의 영향력은 증가했지만 그 공신력은 오히려 감소되는 퇴행적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모른다. 이점은 한국종교들이 앞으로 어떠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종교가 한국인의 거친 삶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개선하고 사회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기능 수행자인 훌륭한 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종교의 현재적 상황을 검토해 보고 종교지도자의 교육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한국종교의 증가하는 영향력과 감소하는 공신력

한국처럼 종교가 다원적인 형태로 혼재 되어있는 나라는 없다. 현대사회 특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의 종교만이 인정되고 절대적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는 드물다. 엄연히 국교적 종교가 있고 지배적 종교가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 밖의 종교가 어느 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처럼 다양한 종교, 다양한 종파가 공존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한국사회에는 시·공을 초월하여 각종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불교나 개신교, 카톨릭, 유교, 이슬람교와 같은 세계적 종교가 포함되어 있으며 반대로 무속을 비롯한 원시 종교형태와 신흥 민족종교들까지 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는 흔히 종교 박람회장 혹은 종교 백화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공중원, 1985: 164).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종교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불균형적 경제성장과 걸잡을 수 없는 속도의 사회변동 과정에서 상당한 비율의 우리국민들이 소외와 아노미와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 사실에 기인한다(김동일, 1985: 189). 이는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종교를 마음의 안식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국종교계가 이 점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부 한국 종교인들은 종종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며 극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종교 자체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문제 덩어리’로 인식케 함으로써 종교의 공신력을 격감시킨 사례도 많다. 더욱이 종교의 상업주의적 세속화와 종교사회에서의 종파간 또는 종교간 갈등은 종교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점은 현재 종교계를 이끌어 가는 종교지도자들에게는 반성을 촉구하는 점이기도 하고 장차 종교계를 대표하고 이끌어 나아갈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육내용이 아닐 수 없다.

1. 한국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와 같은 세계종교들이 백중지세를 이루고 있고, 수많은 자생적 한국민족종교들이 민족세력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무속이 대중의 기복적 심성을 달래주고 있다. 한편, 인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 종교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있다.

이처럼 많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오늘의 우리 사회와 문화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러한 다종교 상황은 과거 1세기 전의 조선조에서도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세계 종교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다종교 상황을 이루고 있다(한국종교연감, 1997).

1964년부터 1994년까지 30년 동안 총인구는 1.58배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동안 종교인구는 무려 6.2배나 증가하여,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인구의 절반(94년 기준 49.9%) 정도가 종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우리나라 종교인구 현황

구 분		계	종교 있음	종교							종교 없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	
지 역 별	전국	100.0	49.9	24.4	18.2	5.9	0.4	0.3	0.1	0.7	50.1
	시부	100.0	51.3	23.7	19.5	6.7	1.3	0.3	0.1	0.7	48.7
	군부	100.0	45.1	26.6	13.8	3.1	0.8	0.3	0.1	0.5	54.9
성 별	남	100.0	41.9	20.	15.4	4.8	0.6	0.3	0.1	0.5	58.1
	여	100.0	57.4	28.2	20.9	6.9	0.2	0.4	0.1	0.8	42.6
연 령 별	15-19	100.0	40.8	11.4	22.6	6.1	0.1	0.2	0.0	0.4	59.2
	20-29	100.0	38.7	14.4	18.5	4.9	0.2	0.2	0.1	0.5	61.3
	30-39	100.0	51.8	24.5	19.7	6.4	0.1	0.4	0.1	0.7	48.2
	40-49	100.0	57.5	30.6	18.3	7.2	0.3	0.3	0.1	0.7	42.5
	50-59	100.0	58.8	36.0	14.9	5.5	0.9	0.5	0.1	1.0	41.2
	60+	100.0	57.1	35.5	13.7	5.3	1.2	0.4	0.2	0.8	42.9
학 력 별	국졸이하	100.0	54.1	35.2	12.9	3.9	0.8	0.4	0.1	0.9	45.9
	중 졸	100.0	49.0	24.1	18.3	5.3	0.3	0.3	0.1	0.7	51.0
	고 졸	100.0	46.8	20.5	19.2	5.9	0.3	0.3	0.1	0.6	53.2
	대졸이상	100.0	52.6	17.0	24.3	10.0	0.2	0.5	0.1	0.5	47.4
계 층 별	상 층	100.0	61.7	27.7	24.5	6.6	1.1	1.1	0.0	0.8	38.3
	중간층	100.0	48.5	24.1	17.0	5.9	0.5	0.3	0.1	0.5	51.5
	하 층	100.0	44.5	25.9	13.2	3.7	0.5	0.3	0.1	0.8	56.6

*자료, 한국종교사회 연구소 편, 한국종교연감, 1995-1996, P.308.

<표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종교인구중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불교 24.4%, 기독교 18.2%, 천주교 5.9%순이다. 지역별 종교인구는 도시지역(51.3%)이 군지역(45.1%)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여성 종교인구는 57.4%로 남성 종교인구 41.9%에 비해 그 상대적 비율이 매우높은 것으로 조사 되

어있다. 학력별에서는 극단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즉, 국졸이하, 대졸이상의 종교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 되어있다. 그리고 계층별에 있어서는 상층으로 올라 갈수록 종교인구의 비율이 높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최소한 인구의 절반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의 개인들의 삶에 종교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종교 인구의 급성장과 함께 종교 집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다. 노치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들이 1995년 한 해 동안 받친 현금액은 무려 3조 원에 이른다. 불교 조계종의 경우 1994년 한 해 동안 전국 57개의 <관광 사찰>을 통해 173억 5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관람료 수입을 올렸다. 여기에다 조계종만 하더라도 1995년 현재 7억 6천만²에 이르는 사찰 부속의 농지 및 산림 그리고 건물 등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 및 시주금 등을 합하면 불교계의 연간 수입도 엄청난 액수에 달할 것이 분명하다. <운명론 신드롬>이라는 제목이 붙은 한 TV프로그램에 의하면 운명 상담가 80만 명이 하루 평균 10만원씩의 수입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운세 산업>의 연간 소득은 무려 28조 8천억 원이 된다. 종교 단체의 수입은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더욱이 단위 종교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수입 액수가 축소 보고되는 경향 때문에 정확한 연가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례만으로도 우리나라 종교들이 놀랄 만한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다(강인철, 1997: 232-233).

종교집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들은 종교집단의 치밀하고 거대한 조직망과 결합되어 사회적 영향력으로 전환된다. 오늘날 종교 집단들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거대한 자발적 조직인 셈이다. <표2>는 각 종교별 교세 현황이다.

<표2> 종교별 교세현황

종교별	단체수	신도수	교당수	교직자수	비고
유교	1	10,185,001	234	18,240	
불교	38	22,400,050	12,197	26,004	2단체누락
천주교	1	3,578,113	1,657	2,369	
정교회	1	2,000	8	6	
개신교	107	13,909,284	46,603	51,890	
이슬람교	1	33,640	5	5	
민족종교	42	15,498,407	6,316	67,974	17단체누락
외래종교	13	2,762,857	2,457	9,601	2단체
합계	204	68,369,352	69,477	176,089	총225단체

*단체 수, 교당 수, 교직자 수 및 신도 수는 해당 종교 단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이며 자료를 제출치 않은 경우, 1995년 연감 자료를 참고로 하였음. 일부단체는 누락됨

*통계청 집계(199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는 44,554,000명임

*신도수는 각종교 단체에서 집계한 수로<표1>의 전체 종교인구 %와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편, 한국종교연감 1997, P.312.

<표2>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등록된 종교단체는 204단체이며 누락된 단체까지 합하면 225단체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 종교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교직자 수가 무려 176,089명이라는 숫자는 직업 군에서 교사집단 다음으로 거대한 직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쨌든 한국의 종교집단들은 거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 종교집단들은 직능별·연령별·성별 조직 등으로 비교적 잘 정비 되어있다. 이 가운데서도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신자들의 직능별 조직인데, 신자들로 구성된 수많은 직능단체들은 선교나 회원간의 친목 도모만이 아니라, 종교의 영향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한 수단과 종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제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 집단들은 교육, 의료, 사회 운동 등의 영역에서 이미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종합 대학만 하더라도 1994년 현재 4년제 대학 42개교, 전문 대학 18개교 등 모두 60개교에 이른다. 의료, 사회 복지, 사회 운동 등의 영역에서도 사정은 이와 유사하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종교 집단들은 언론 영역에도 활발하게 진출했다.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기독교 방송과 극동 방송, 아세아 방송 외에도 1989년과 1990년에 천주교의 평화 방송국과 불교 방송국이 각각 설립되었는데, 불교의 포교를 위한 전문 방송국의 설립은 세계 최초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1995년에는 불교 방송과 평화 방송이 유선 TV 방송을 시작했고 기독교 유선 TV방송국도 새롭게 출범했다. 1994년 현재 종교 단체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은 3개 일간지를 포함하여 모두 223 종에 이르고 있다. 교육, 의료, 사회, 복지, 언론, 사회 운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장기적으로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나아가 종교 집단은 기업 및 정부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세계화 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해외 선교가 시작된 개신교의 경우 1979년 현재 26개국 93명에 불과하던 해외 선교사 숫자가 1994년 6월 현재 119개국 3,272명에 이르러 해외에 파견한 선교사의 숫자면에서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다. 개신교에 비해서는 훨씬 뒤지지만, 천주교의 경우에도 1981년 4명으로 시작한 해외 선교사가 1994년 3월 현재 53개국에서 182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견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했다. 이처럼 기독교의 세계화

가 두드러지지만, 종교 조직의 세계화는 비단 기독교와 같은 서구적 세계 종교들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예컨대 불교 전체로는 1994년 8월 현재 10개국에 98명의 포교사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계종의 경우 1995년 5월 현재 미국(32명)을 포함한 13개국에 53명의 국제 포교사가 이미 파견되어 있고 1995년 하반기에도 12명을 국제 포교사로 양성하고 있다. <민족>종교들도 세계화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원불교와 증산도가 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강인철, 1997: 333-334).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한국의 종교집단들은 그 규모면에서 실로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집단으로 성장했다. 종교집단의 치밀하고 거대한 조직망에 결합되어 있는 인적자원과 종교집단의 재산과 물적 자원은 한국의 사회변동을 초래하거나 저지하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종교계는 급성장 속에서 종교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집단으로 내실이 다져졌다고 보다는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 사회적 공신력은 양적 성장으로 증가 사회적 영향력과는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감소되어 왔다. 이처럼 한국종교의 사회적 공신력 감소는 한마디로 한국종교가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 한국종교의 문제와 사회적 공신력의 감소

사회일반이 종교 및 종교집단의 존재와 역할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보는가? 사회의 성원이 종교 및 종교집단의 존재와 역할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보는 한, 종교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사회일반의 종교에 대한 규범적 기대는 다른 어떤 사회부문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종교인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상대적으로 크게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비난받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종교집단의 내부갈등으로 나타날 때 더욱 종교의 사회적 공신력은 감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종교의 공신력이 그 양적 성장에 반비례하여 감소되는데는 ①한국종교의 세속화 ②종교간 갈등 ③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극단적 행동 등이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강신표, 1989 ; 이은봉, 1989 ; 김동일, 1989 ; 공종원, 1989 ; 강인철, 1997).

1) 한국종교의 세속화 : 종교와 황금만능주의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한국종교는 여러 얼굴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종교지도자들은 그 추종자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가치체계와 공동체상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한국인의 기본적 종교심리인 무속적 기복주의는 종교계의 세속화와 더불어 황금만능주의로 퇴색되어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같은 종교 본래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돈이 종교적 실천의 중심이 되어있다. 예컨대, 성직자의 설교·강론·설법에서 반복되는 헌금에 대한 강조, 수많은 헌금의 유형, 종교메시지의 상품화, 동양최대·세계최대를 추구하는 초대형 교회, 불사 그리고 사찰재산을 둘러싼 분쟁, 금권에 이끌리고 폭력을 동원하는 교단장 선거, 종교비자금 조성을 위한 이중장부 작성들은 종교의 근본목적을 훼손시킬 정도로 돈과 이권이 종교적 실천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또한 종교조직 안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지도력 구조면에서 중류층과 상류층의 중심화와 하류층의 주변화 경향은 한국의 거대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들이다.

2) 종교간의 갈등문제

한국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다종교 상황의 특징은 단순히 다수의 종교들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은 세계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그 어느 하나도 오늘의 우리 사회와 문화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한국에는 불교, 유교, 토착적 민간 신앙들 외에도,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여 봉건 체제 붕괴기 혹은 식민지 시대에 탄생한 다수의 민족종교들이 존재한다. 종교간의 접촉과 교류의 기회가 현저히 증대됨에 따라 종교간의 관계가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회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강인철, 1997: 252-253).

오늘날은 물론 정치권력을 지배하는 종교, 혹은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압도적 특권을 누리는 종교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종교의 배척이나 박해는 없다. 당연한 일이지만 또 일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상황일 뿐 위험하고 위태로운 종교간 갈등양상이 조

금씩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 그 갈등의 양상을 유형별로 보면, ①다른 종교인에 대한 오만한 선교행위, ②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행위, ③다른 종교의 성물을 파괴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④사회 주도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종교활동을 방해, 저지하는 일, ⑤다른 종교들이 그 바탕으로 하는 전통문화의 제요소 부정, ⑥정치분야에서 종교간 갈등 등을 들 수 있다(공종원, 1989: 165-169).

종교간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문제, 신념차원에 그치는 종교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중심·사회세력의 지도력 확보와 맞물려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국민이 타종교에 대해 아직까지는 관용적이기 때문에 종교갈등이 극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3) 종교적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극단적 행동

한국종교인들은 종종 무자비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 행동을 연출하여 종교적 가치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최근의 예가 바로 지난 추석의 영생교도 집단 자살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그 예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 1987년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32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른바 오대양사건을 비롯하여, 이탈한 신자를 납치 살해 암매장한 사건, 소적새마을 공금횡령사건, 경기지방에 소재해 있는 경기여자 미술학원과 효친원의 불법운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종교기관이나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수용자 등을 비인간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이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에 폭로되는 일은 흔하다. 1994년 봄에 이어 최근 1998년 11월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두고 벌어진 극단적 폭력행동, 1992년 청소년·부녀자의 가출과 세뇌논쟁을 광범위하게 불러일으켰던 시한부 종말론 등은 모두가 종교적 가치관을 회의하게 하는 극단적 행동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미루어 볼 때 오늘날 종교가 우리사회에서 도덕적 교사로서 역할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제공하기 보다 불안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에도 논의 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짧은 기간동안 과소평가 할 수 없는 종교의 양적 성장에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종교의 사회적 공신력이 감소한 이유를 정리하면 ①교회나 사찰운영에서 제기되는 온갖 비리에 대

한 사회적 불신, ②종교의 상품화, ③교회나 사찰을 사고 파는 문제, ④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종교운영 방식, ⑤종단운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종교지도자들 간의 집단적인 권력투쟁, ⑥종교계의 사회적 빈곤과 소외에 대한 의면, ⑦개인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일부 신흥종교의 사이비화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III. 한국종교지도자 교육의 현황에 대한 검토

한국종교계가 나름대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사회적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는 근본이유는 능력 있고 사명감이 투철한 참다운 종교 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한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종교가 자본주의에 굴복하는 것도 그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집단적 권력투쟁 등은 바로 종교지도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성직자로서 사명감과 관련되는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지도자의 자질과 능력문제는 바로 성직자의 양성 및 교육체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종교지도자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종교지도자 교육¹⁾의 현황을 ①성직자가 되고자 종교지도자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지원자 현황 ②성직지원자의 질 ③종교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직자 양적 확보와 관련이 있는 종교지도자 교육기관 입학자의 수적현황에 대한 검토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종교지도자 교육을 받고자 입문하는 성직자 지원자 수는 종교별로 큰 차이가 난다.

개신교는 매년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성직지원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정규 대학(원)을 통한 성직지망생만도 3,000명이 넘는다. 그 다음으로는 불교가 많을 것이지만 신도 수나 사찰 수에 있어서 전 불교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연가 성직가 지원자(행자 교육원 입학자)가 400-500명에 불과해 모든 종단의 성직지원자를 합해도 1,000-2,0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천주교는 6개 가톨릭대학의 입학정원이

1) 여기에서의 종교지도자 교육은 각 종교별 성직자 양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종교지도자와 성직자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400명이나 대부분 미달이거나 정원을 겨우 넘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약 300명 내외). 원불교도 두 개 성직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이 70명이나 실제 입학자는 정원에 못 미치는 50명 내외의 성직자 지원자가 있을 뿐이다. 결국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세 종교에서는 성직자 지원자의 모집이 큰 문제가 되고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다는 것이다(류성민, 1997: 30).

성직이 결코 인기 있고 매력 있는 직종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성직자 지원자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졸업 후의 취업률과 사회적, 경제적 대우 등에 따라 인기가 결정되는 대학의 현실에서는 성직 양성학과가 비인기학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원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점점 더 대학입학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성직자 지원자의 수적 감소는 모든 한국의 종교들이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직지원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이다. 성직 지원자의 질적 수준을 대학입학성적과 지원자 요건을 토대로 볼 때 대학지원자 중 타학과 지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성직자 양성대학 지원자들의 고등학교 내신성적은 6-8등급으로 중간 정도의 성적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도 110점 대이다. 1995학년도 수능시험의 전체 평균점수가 99.4점이었고 상위 50%선이 107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중간정도의 성적을 지닌 학생들이 성직자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5: 454-455).

정규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종교별 성직자 양성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지도자가 되고자하는 학생들은 성적측면에서 보면 결코 우수하다 말하기 어려우며 성직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교육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세째, 종교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이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 종교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종교별로 많은 차이가 난다. 천주교와 원불교는 성직자가 되는 일이 비교적 단일화되어 있는 반면에 불교와 개신교는 종단이나 종파별로 차이는 있을지라도 매우 다원화 되어있다. 천주교는 전국의 6개 가톨릭대학을 통해서만 성직자의 길로 들어 설 수 있으며, 원불교도 원

광대학교와 영산원불교대학교를 통해서만 성직에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천주교와 원불교는 교육기간이나 교과과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고른 질적 자격을 갖춘 성직자들을 양성할 수 있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는 대학을 나온 후 대학원과정까지 마치고 목회 경력 등 또 다른 요건을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학력도 불문하고 몇 년 동안의 수학만으로도 안수를 주는 등 천차만별의 성직양성과정이 있다. 그만큼 성직자의 자질도 개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는 상당수 대졸자가 출가하여 행자교육원에 입교하기 때문에 비교적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승려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불교계 전반적으로는 종단별로 매우 상이한 승려 지원요건과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승려들의 질적 수준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연령면에 있어서는 대학입학을 기준으로 성직지원이 이루어지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가 주로 20대 초반에 성직지원을 하게 되나, 불교의 경우 출가라는 절차를 통해 승려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로 해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가장 많다(류성민, 1997 :31-32).

이상에서 논의된 종교지도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의 수, 질적 수준 그리고 자격요건 등을 감안 할 때 한국 종교계는 성직자 확보에 있어서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유능한 성직자 확보를 위한 종교지도자 교육유인책이 미흡한 이유는 ①종교의 세속화로 성직이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닌 수많은 전문직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②성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 까다로우며 ③경제적 대우도 높지 않으면서도 청빈·금욕·희생·봉사 등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종교적 진리전달자로서, 종교집단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신자들의 인생 상담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다해야 하는 종교지도자의 공적 역할을 생각할 때 우수한 예비 종교지도자를 선발하고 교육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종교계는 종교계의 내실 있는 발전과 그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능력 있는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종교지도자 교육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결론 : 한국종교지도자 교육방향

종교는 가치관의 사회적 실체이다. 종교가 지닌 사회적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사회질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사회질서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한다. 종교가 사회적 가치관의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기능을 다 할 때에 비로소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종교는 현대사회에서 외면당하게 마련이다.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과거의 영광을 잃어 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총체적 위기에 당면한 한국의 오늘의 상황은 바로 가치관의 붕괴와 도덕적 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관의 붕괴와 도덕적 도산은 종교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위에 언급한 불교,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만을 합해도 그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반에 육박한다. 그러므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종교인이다. 한국국민의 절반이 종교단체의 정신적 가치와 도덕적 실천의 내용을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교육받는다. 교단은 신도에 대한 그러한 교육과 수행을 주도한다. 그런데 도덕적 파탄의 길로 한국사회가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종교계가 양적으로 급성장 하는 과정에서 사명감이 투철하면서도 능력 있는 종교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종교지도자다운 종교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종교계는 그 정체성 미확립으로 자본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부 종교계는 내부적 헤게모니 싸움에 휘말려 불상 사나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는가 하면, 종교간 갈등은 사회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 신홍 사이비 종교꾼들은 흑세무민하는 극단적 행동으로 종교적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혼란시킴으로써 종교에 대한 공신력의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공신력 감소는 성직자, 종교지도자의 권위의 몰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교지도자들의 미확보가 한국종교의 양적 성장에 걸맞지 않는 사회적 공신력의 감소를 초래한

셈이다. 따라서 한국종교계는 종교적 신앙심을 갖도록 하는 선교자로서, 교리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교리전달자로서, 자기 종교를 대표하는 대리자로서, 신자들의 고충과 안식을 주는 상담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모델링의 대상인 사회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종교지도자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교지도자 교육의 방향을 결론 삼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지도자 교육은 종교의 본질과 그 다양성에 대한 탐색관계, 신앙적 깊이와 종파적 교리체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단계, 종교지도자로서 전문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단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별 교육을 통해서 보편 타당한 종교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교리화하고 조직하여 흑세무민하는 사이비종교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둘째, 삶의 다양한 경험을 지성과 사랑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지도자 교육의 기본방향은 인류가 보편적 가치로 합의하고 있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인권과 인간존엄, 평화,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적 개방성과 관용성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미래의 성직자는 세계를 향하여 끝없이 열려있어야 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불안해소에 도움이 되고 한국인의 정서순화에 이바지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의 통일, 권위주의 극복과 민주화, 사회복지 실현과 평등화 등의 보편적 가치가 종교지도자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셋째, 종교지도자 교육에서는 성직자의 양적 저변 확대와 그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모색과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성직자의 양적 확보를 위해서는 성직자 양성대학과 학과의 다양한 예비성직자 선발방법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장차 성직자로 종사할 종교계의 일꾼이자 사회봉사자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학제도가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예비성직자 선발에서는 다양한 능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학력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의 수준을 대학원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교종파별 현 성직자 양성 교육에 전문대학원제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신교나 불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직자들의 질적 차이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직자 지원의 과정이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있고, 교육연한이나 교육과정도 천차만별인 상황에서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는 힘들다. 종교별 혹은 종단별로, 적어도 교파별로는 일원화된 성직지원과정과 교육과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돌파의 의사가 줄 수 있는 피해는 저질의 성직자가 주는 악영향에 비하면 어쩌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종교지도자 교육은 나의 믿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주의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다 종교국가임을 생각할 때 종교지도자 양성교육에서는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이해를 넓혀줄 수 있는 교육이 요청된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경우 극단적인 종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적은 없지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타종교와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상생적 종교 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세계는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대 큰 전환의 시기에 있다. 세상이 바뀌면 종교집단도 바뀌어야 한다. 또 종교집단이 바뀌면 성직자도 바뀌어야 한다. 더구나 전환의 폭이 넓으니 성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바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실상 종교는 약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약은 병만큼이나 종류가 많았다. 약에 큰 효험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약을 과다복용하고 적절히 사용하지 못할 경우 독이 되기도 한다. 세상이 복잡해져 신자들의 마음 병도 복잡해지니 성직자들은 더욱 능력을 갖춘 약사가 되어야 한다. 병세에 따라 다양하고도 적절한 처방과 조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약처방이 복잡해져도 지켜야될 원칙은 바로 신도들을 병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직자들은 무엇보다도 신도들의 아픔에 직접 동참하는 약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표(1989). “내일의 한국사회와 종교·문화인류학의 관점”. 한국종교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신명출판사.
- 강인철(1997). “종교문제 : 굴복, 불안정, 갈등으로 점철된 한국종교”. 한완상. 권태한 편.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서울: 민음사.
- 공종원(1989). “내일의 한국사회와 종교”. 한국종교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신명출판사.
- 김동일(1989). “내일의 한국사회와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종교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신명출판사.
- 김종서(1989). “오늘의 한국사회와 종교”. 한국종교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신명출판사.
- (1997). “전환시대의 성직자 상” 하상의 편. 전환시대의 성직자 교육. 영산원 불교대학교출판국.
- 노치준(1995).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 류성민(1997). “성직자 지원자 현황과 전망: 하상의 편. 전환시대 성직자교육 영산원불교대학교출판국.
- 박원기(1997).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윤승용(1997).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 이원주(1997).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 이은봉(1989). “한국종교의 현주소”. 한국종교협의회 편. 한국사회와 종교. 서울: 신명출판사.
- 전영배(1990). 종교·사상교육. 서울: 보문출판사.
-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편(1995). ‘96학년도 전국대학 수험자료집-교사용.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최창무외(1994). 한국사제 양성자 연수회. 서울: 가톨릭대학출판부.
- 하정남(1997). “성직자 교육과정의 현황과 전망”. 하상의. 전환시대의 성직자 교육.

영산원불교대학교출판국.

한국기독교교육학회(1997). 21세기 기독교 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한국종교사회연구소(1996). 한국종교연감 1995. 1996. 서울: 한국종교사회연구소.

------(1998). 한국종교연감 1997. 서울: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황경식(1987). “종교와 도덕성의 자립성”. 그리스도 철학연구소 편.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서광사.

Rajiv Mehrotra(1996). “종교와 가치체계”. 장대환 역. 21세기예측.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Ng. David(1992). “Impelled Toward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vol.87, No.2.

Mohammed, Ovey N.,(1992). “Multiculturalism and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vol. 87. No.1. 62-73.